



2013전국장애청소년 해양레포츠 캠프 참가자들이 지난 10일 송도해수욕장에서 보트를 타며 해양체험을 하고 있다. 부산시장애인체육회 제공

“해양레포츠 캠프 아래선 모두가 한마음”

전국 장애·비장애 청소년 어울림 프로그램 성료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하는 2013 전국장애청소년 해양레포츠캠프가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다.

전국에서 290여 명이 참가해 서구 송도해수욕장 일원에서 펼쳐진 이번 캠프에서는 해양레포츠와 도예 체험, 천체 관측, 시티 투어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돼 참가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특히 바나나보트, 모터보트, 스노클링 등 해양레포츠 행사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청소년이 함께 보트에 탑승해 우의를 다졌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전국의 장애청소년과 비장애청소년이 어울림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식을 개선하고 사회성을 함양하는 데 큰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부산시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타 지역에서 온 참가자들이 부산의 바다 등을 체험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면서 “내년에는 보다 많은 인원이 참가할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